

# 2024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광주매일신문

(제8771호) 대표전화 (062) 650-2000

2024. 9. 27. (금) - 10. 6. (일) | 광주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

작품판매전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광주매일신문이 작가와 컬렉터의 예술 동반자로서 역할하며 지역 유망 작가 발굴 및 예술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오는 27일부터 10월6일까지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에서 '예술을 선물합니다'를 주제로 한 작품 판매전이 열린다. 이번 판매전에서는 잠재된 역량으로 무한 성장을 펼쳐가고 있는 실상호·이철규·전현숙·강남구·조강현, 개성 있는 표현으로 주목 받는 이정록·박희정·염소영·진하, 청년작가 웨이더원·전정연·이다애·전동민·지니킴 총 14명 작가의 140여점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의 대표 작품을 비롯해 저마다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가노트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 자연에서 포착한 신비로운 생명 '초월적 에너지' 빛으로 표현

1 이정록 작가

생명 나무는 겨울과 봄 어디쯤에서 만난 감나무에서 시작했다. 겨울의 흑독한 추위에 바짝 마른 나뭇가지 끝에서 인듯 초록이 보였다. '그때 나는 정말 보았던 것일까?'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죽은 듯 말라버린 그 가지는 생명의 싹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한 겨울을 나는 모든 나무가 그러하듯이, 그 생명력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어디 그뿐이랴 일종의 각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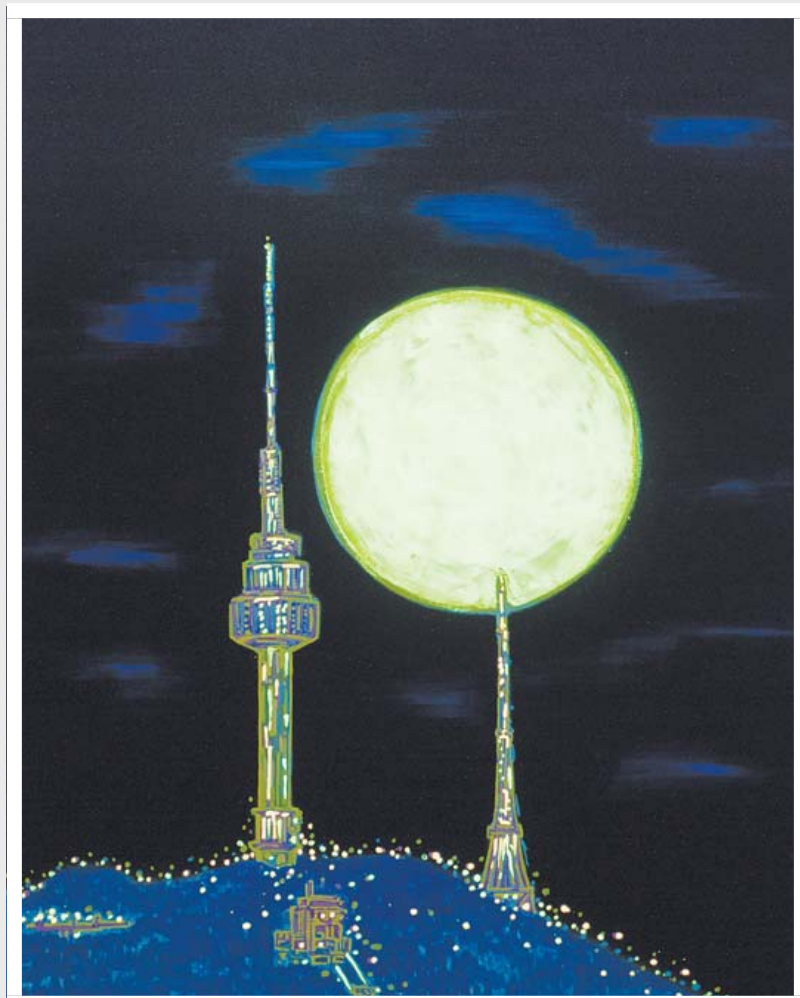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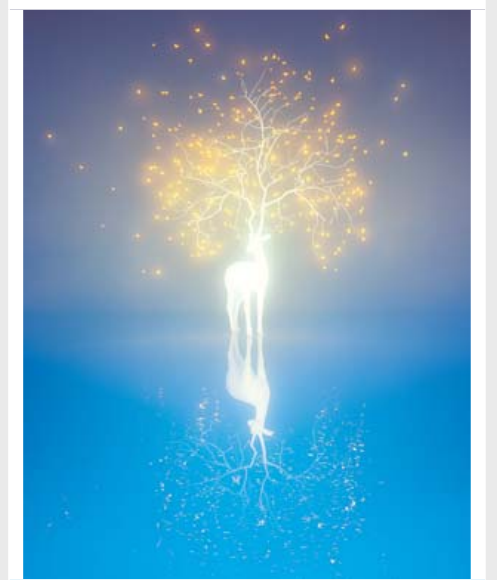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각성.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분명 존재하며, 눈에 보이는 세계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상응한다.

나는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마른 나뭇가지가 품고 있는 생명력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 우연히 빛을 사용하게 됐다. 빛은 생명력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매체였다. 게다가 빛의 송고함은 나무의 신령함만큼

이나 인류의 보편적인 원형이기도 하다. 나무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관문이자 일종의 균열이다. 빛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교류를 상징한다. 생명 나무는 그 자체로 두 세계 간의 상응을 표징하는 셈이다. 현대 산업사회는 굉장히 자국이 많다. 근원

적인 것을 잊게 할 정도로. 나는 작품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우리 안에 내재한 근원적인 세계가 맞닿는 지점을 만들고 싶었다. 단순히 자연과의 교감에 그치지보다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파장을 환기하기 바란다.

◆단체전: 200여회(황가리, 벨기에, 인도, 영국, 타이완, 중국(난징, 베이징, 따리고성, 운남성, 정주), 미국(뉴욕) 등)  
◆작품소장: 고은사진미술관(부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천), 광주시립미술관, 대림미술관, 아트선재미술관(경주), 일민미술관(서울), 제주도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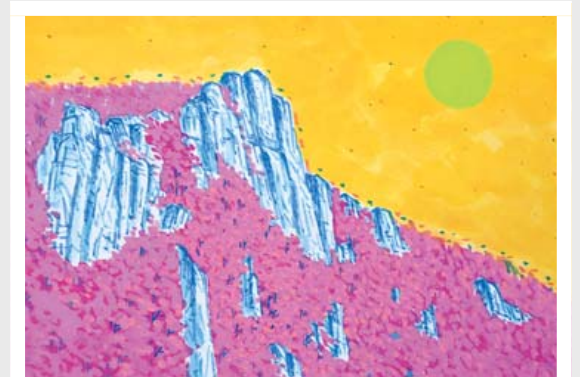
## 빛과 색의 희망적인 순간을 그려내

2 전동민 작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풍경을 내려다보곤 한다. 복잡한 속의 한 점에 불과한 나는 그 복잡함에 어우러져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결국, 내 눈에 비치는 풍경은 인고의 시간이 지난 후 완성된 환희로 가득찬 환상, 환영처럼 내면의 기쁨과 편안함을 안겨준다. 이전의 작업은 열상 카메라를 통해 드러난 열을 사물의 내면으로 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옮기는 일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전과 같이 작업에 사용하는 기법인 정방형의 부분들을 균일하거나 혹은 불규칙적으로 변형해 면적 크기와 형태를 표현하는 모듈 기법을 사용한다. 그 기법을 통해 색과 면, 즉 색과 공간의 변형을

통해 형태적인 시각 변형과 색의 대비를 혼용하여 표현함으로써 구체적인 색채의 대비를 통해 도시가 품은 수많은 사람, 사물들의 색채가 생명력을 발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깊이 있게 표현하고자 했다.

◆개인전: 15회(광주, 서울)  
◆부스개인전: 7회  
◆아트페어: 16회(홍콩, 서울, 광주, 인천 등)  
◆단체전: 240여회(미국, 북경, 상하이, 대만, 서울, 경기, 광주, 대구, 전주, 목포)  
◆표지: 2020 화성동탄아르뎀복지관 열성 팬용 상품 표지 선정 2020 우리은행 '남산 그리고 보름달' 표지 선정 2020 서울+문화 '서울야경' 표지 선정 2020 효성그룹 서울야경 표지 선정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 은행, 광주시립미술관, 영은미술관, 국립공립미술관, 대동문화재단, 대웅제약, 탐탐타스, 세종시청,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몽규프로덕션, 난청보청기센터, 다은 갤러리, 일호갤러리 그외 개인소장 다수



## 불완전함·불완전성에서 '관계'의 깊이와 아름다움 찾아

3 실상호 작가

관계는 항상 완벽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 작업에서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소재들을 사용해 관계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속의 소박하고 목직함 색감과 비대칭적인 구성은 이러한 관계의 특성을 반영한다. 마치 시간이 흐르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변화와 소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흔적들을 담아내려는 시도와 같다.

작업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관계라는 주제에 대해 성찰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불완전한 것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 모두가 삶 속의 관계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전, 섬진강미술대전, 배동신미술대전 역임  
◆작품소장: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 북구청, 순천시청, (주)상상도건, (주)참고을, 송조식품, 센트럴안과, 소암미술관, 최선어학원, 용인트트병원, 연세(주)상조, 사랑방신문

